

### 3. 뉴스클리핑

#### 1. 국내외 반도체산업 주요 뉴스

##### ▶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률 또 상향 조정... "12→19→24% 성장"

[원문보기](#)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이 기존 관측보다 더 크게 성장해 처음으로 5000억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강점을 갖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매출은 올해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분석됐다. C인사는 올해 반도체 시장의 전년 대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4%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 ▶ 가상화폐 열풍 팽리스 판도 바꿨다... GPU·AP도 '품귀'

[원문보기](#)

가상화폐 열풍이 반도체 설계(팹리스) 업계 판도를 바꿨다. 엔비디아와 AMD 매출이 급증했다. 엔비디아가 매출액 세계 2위 팹리스가 됐다. 5세대(5G) 이동통신 성장에 따른 퀵컴과 미디어텍 호조도 눈길을 끌었다.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생산능력(캐파) 부족도 심화했다.

##### ▶ 반도체 분야 최상위 협의체, 내달 출범...

[원문보기](#)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최상위 협의체인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가 다음달 초 출범한다. 위원장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제조(소자) 등 전 밸류체인(가치사슬)의 주요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연대·협력 위원회의 출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 "美, 반도체·배터리 공급망서 中 의존도 낮추기... 韓에 기회"

[원문보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은 자국내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와 함께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김 전문연구원은 한국무역협회가 18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미국의 공급망 강화전략 주요내용 및 전망 세미나'에서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5%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 ▶ 반도체 원천기술 '십년대계'... 3000억 규모 민관 사업 추진

[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올 하반기에 '민·관 협력 반도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예비 타당성조사(예타)를 추진한다. 사업은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서 필요한 '상용화 경쟁 전 단계 기술'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R&D를 추진, 핵심 원천기술과 실무형 우수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이다.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10년 동안 총 사업비 3000억원(국비 1500억원, 민자 1500억원)을 투입한다.

##### ▶ 네프코, 국내 1위 포토마스크 기업으로 도약한다

[원문보기](#)

포토마스크 전문기업 네프코(대표 박중철)가 올해를 구내 1위 포토마스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1992년 출범한 네프코는 고객사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인쇄회로기판(PCB) 생산공정에 필요한 포토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다. 포토마스크는 소다라임 계열 유리wafer와 쿼츠(석영) 기판위에 회로를 그려넣는 것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PCB 등을 만들 때 사진 원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